

KT, MSCI 지수 편입 여부에 “주가 호재” vs “실적 전망 ↓”

외국인 지분율 41.65% 이하로 편입 시
순매수 예상 규모 1996억 전망
1분기 영업익 하락이 변수될 듯
통신주 디커플링... “주의 필요”

KT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편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수로 편입되면 전체 시총 약 8조원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이 유입된다.

KT는 3일 5월 리뷰에서 에코프로, 코스모신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금양 등 4개 종목과 함께 지수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

시가총액 및 유동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MSCI 지수에 편입되면 통상 주가가 오를 사례가 많다. 다만, 최근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은 지수 편입에 제외될 가능성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MSCI 지수는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발표하는 세계시장지수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 의사 결정에 참고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세계 주요 지수 중 추종 자금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가총액 및 유동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편입 종목을 선정한다.

MSCI의 유효 추종자금 규모는 4000억달러(약 527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지수에 편입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등 패시브 펀드를 통해 상당 규모의 외국인 투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지수에서 퇴출되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최근 MSCI 지수에 편입·편출된 종목의 주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지수 편입에 성공한 종목에서 약 절반은 60%대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KT는 MSCI 지수에 편입되면 지금까지 사례를 분석해볼 때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외

국인 수급이 관건인데, 26개 종목 중 22개 종목이 3개월 동안 외국인 순매수를 기록한 바 있다.

KT에 있어서는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MSCI는 외국인 투자 제한 종목에 대해 지수로 편입될 시 외국인이 추가로 보유할 수 있는 수량을 들여다보게 된다. KT의 경우, 심사 기준일 외국인 보유비율이 41.65%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일 외국인 지분율은 40.4%로 집계됐다.

최남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심사일 기준 KT의 외국인 지분율이 41.65% 이하일 경우, MSCI에 편입되고 편입시 순매수 예상 규모는 1996억원으로 전망된다. 4월 6일 기준 외국인 지분율은 40.65%”라며 “최근 KT는 지배구조 관련 잡음에 시달리고 있고, 자사주 매입이 진행되고 있어, 외국인 지분율이 41.65% 이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고 분석했다.

하지만 KT가 1분기에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줄어든 실적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실적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실적 등을 따져봐야 하며, 단순히 MSCI 지수에 편입된다고 해서 주가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MSCI 500억 유입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과거 SK텔레콤과 KT 편입 사례를 보면 하루 이틀 안에 거래가 끝날 공산이 크다”며

“통신주도 이제 디커플링이 나타날 수 있다. KT는 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디커플링이란 어떤 지역의 경제가 인접한 다른 국가나 전반적인 세계 경제의 흐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현상을 가르킨다.

그는 “경영진 교체 리스크는 주가에

이미 반영된 반면, 올해 이익 및 DPS(주당배당금) 감소 우려는 아직 주가에 미반영됐고, 국내 통신 3사 중 향후 3년간 이익/DPS 성장률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배당수익률이 가장 낮게 형성돼 있었다. 올해 연결 뿐만 아니라 배당의 근원인 본사 영업이익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일회성 비용을 제거한 2022년 실질 배당 성향이 55%였음을 감안할 때 2023년엔 DPS 감소가 예상된다”며 “지난해 양호한 모습을 보였던 영업비용이 3사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생긴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2023년 KT 실적은 다른 이통사들과 달리 좋지 못할 것이며, 4월 이후 실적 전망치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1분기 실적에 실망한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강해질 것이다. 자사주를 매입할 때 비중 축소에 나서는 것이 현명해보인다”고 분석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SK지오센트릭, 울산 ARC 내 해중합 공장 건설한다

(플라스틱 재활용 종합 클러스터)

캐나다 루프사와 JVA 체결
폴리에스터 섬유 재활용 가능
또 해중합 기술 상업화 독점권
프랑스서 수에즈사와도 협업

SK지오센트릭이 울산에 세계 최초 플라스틱 재활용 종합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재활용 핵심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과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SK지오센트릭은 캐나다의 루프(Loop Industries)와 합작법인 설립 계약(JVA)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체결식은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 다니엘 솔로미타(Daniel Solomita) 루프 CEO 등 양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화상 연결로 진행됐다.

SK지오센트릭과 루프는 51대 49 비율로 각각 지분 투자해 합작법인을 연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오른쪽)과 다니엘 솔로미타(Daniel Solomita) 루프 CEO가 온라인 화상연결로 진행된 체결식에서 합작법인 설립에 합의했다. /SK이노베이션

내 설립 예정이다. 이 합작법인은 SK지오센트릭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구축 중인 플라스틱 재활용 종합 클러스터(울산 ARC, Advanced Recycling Cluster) 내 연 7만톤 규모의 해중합 재활용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루프는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의

일종인 해중합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해중합 기술은 유색 페트(PET)병, 폐폴리에스터 섬유 등 플라스틱을 이루는 큰 분자의 중합을 해체시켜 플라스틱 기초 원료 물질로 되돌리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폐플라스틱을 고품질 재생수지로 다시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아시아는 글로벌 제조업 중심지로 페트(PET)와 폴리에스터 섬유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 중 하나다. 특히, 폴리에스터로 만든 스포츠류, 봉제원단, 현수막 등은 현재의 기술로는 재활용이 어려워 주로 소각·매립되고 있다. SK지오센트릭 측은 “합작법인 공장이 설립되는 2025년 이후엔 이러한 폴리에스터 섬유도 재활용이 가능해져,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오염 방지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합작법인은 아시아에서 해중합 기술 상업화의 독점적 권리도 갖게 된다. 양사는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아시아에서 최소 3개 이상의 해중합 공장 건설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통해 재활용 플라스틱 수요를 선점할 계획이다.

SK지오센트릭은 유럽에서도 루프와

협력하며 플라스틱 재활용 합작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다. 양사는 프랑스의 환경전문기업 수에즈(SUEZ)와 함께 프랑스 북동부 생타발 지역에 오는 2027년까지 연간 7만톤 규모의 재활용 공장 설립을 목표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은 “이번 합작법인 설립 계약으로 재활용 공장 건설 구체화는 물론 세계 최고의 리사이클링 소재 기업(Global No.1 Recycling Material Company)이라는 목표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며 “루프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니엘 솔로미타 루프 CEO는 “SK지오센트릭과 수년간 긴밀한 협력으로 페트(PET)와 폴리에스터 섬유의 순환 경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다”며 “아시아지역 합작 공장 설립을 통해 폴리에스터 섬유를 활용하는 글로벌 브랜드 고객들도 순환경제 구축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zelkova@

‘넷마블 게임콘서트’서 건강한 게임문화 공유

게이미피케이션 중요성 높아

넷마블문화재단은 건강한 게임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달 29일 넷마블 본사에서 ‘2023 넷마블 게임콘서트’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게임콘서트는 넷마블문화재단이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게임산업 트렌드 및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현업자의 경험을 나누는 오픈 포럼 형식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게임과 미래’라는 메인 테마 아래 올해 첫 번째로 열린 이번 16회 게임콘서트는 사전신청에 선정된 100여명의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균관대학교 최재봉 교수와 이지콘텐츠연구소 이동건 대



2023 넷마블 게임콘서트서 (왼쪽부터)김수현 아나운서, 최재봉 교수가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넷마블

표의 강연이 진행됐으며, 강연자와 소통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 및 코웨이 물빛소리 합창단 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이뤄졌다.

‘디지털 신대륙의 성공열쇠, 게임’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최재봉 교수는 “지난 10년간 인류 문명의 디지털 대전환이 발생함에 따라 인류는 디지털세계

관을 바탕으로 상상력과 실력을 키워야 하며, 진정성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건 대표는 ‘게임으로 배워볼까’라는 주제로 게임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피었다. 또한 교육기능성 게임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경험과 노하우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대표는 “교육 분야에서도 게이미피케이션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역할 또한 증대되고 있다. 이를 교육 현장에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획력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특성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게임콘서트 강연 내용은 추후 유튜브 채널 ‘넷마블TV’에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HD한국조선해양, 업계 최초 탄소중립 선언

저탄소 연료 활용·전력 소모량 ↓방안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연료 전환 ▲재생에너지 도입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등의 세부 계획을 담은 ‘탄소중립 이행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해상중공업 등 조선 부문에서 발생하는 연간 탄소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해(2018년 대비 2030년 28%, 2040년 60%),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HD한국조선해양의 탄소중립 방안은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

Ti)를 바탕으로 스코프(Scope) 1과 2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스코프란 GHG(온실가스) 프로토콜이 정한 기업의 탄소 배출 범위를 말한다.

먼저 스코프 1에 해당하는 직접 배출 탄소량 관리를 위해 HD한국조선해양은 시운전 선박과 운송용 차량에 쓰이는 연료를 수소, 메탄올, 암모니아와 같은 저탄소 연료를 활용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스코프 2로 분류되는 사업장 내 간접 배출은 크레인 등의 핵심 부품을 교체해 전력 소모량을 줄이고, 조선소 내 LED 조명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태양광과 풍력을 활용한 자가발전과 전력구매계약 등을 통해 2050년까지 ‘RE100’(재생에너지 100%)도 달성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